

 <small>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</small>	보 도 자 료		작성과	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(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)
	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담당자	관 장 박철규 팀 장 김민균 학예연구사 추경아
			연락처	051-629-8602 051-629-8616 051-629-8622

2022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“포모가 나눠주는 어린이날 선물” 행사 개최

-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(이사장 김용덕)은 5월 5일(목)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하여 재단 산하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(이하 역사관)에서 “포모가 나눠주는 어린이날 선물” 행사를 진행한다.
- 포모는 강제동원(Forced Mobilization)의 약자로, 평화의 상징 비둘기가 강제동원의 아픔을 극복하고 고국에 소식이나 안부(희망)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.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재단의 활동을 알리고자 만들어진 캐릭터이다.
- 이날 행사는 5.5일 오전 11시, 오후 2시에 걸쳐 역사관 7층 어린이 체험관에서 2차례 진행되며 강제동원의 4가지 유형을 소개하고 나아가 인권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오브제 인형극으로 상연한다.
- 강제동원 피해·희생자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고 어린이들의 밝은 미래가 열리기를 기원하여 인형극을 관람한 어린이에게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다.

- 기념품은 인형극을 관람한 어린이만 1인 1개 선착순으로 증정한다.
인형극 관람 후 강제동원 피해·희생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연계 체험도 진행할 예정이다.
- 별도의 참가 신청 없으며 참가비는 무료이다. 문의) 051-629-8622
- 한편, 재단은 미래세대에게 강제동원 피해·희생자의 아픔을 전달하고 희망과 교훈을 줄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기획하겠다고 밝혔다.

붙임**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행사**☐ 행사 명칭 및 내용

행사 명칭	행사 내용
포모와 함께 알아보는 강제동원	- 강제동원의 4가지 유형과 인권의 소중함 전달
피어나라, 활짝	- 어린이들의 미래와 강제동원 피해·희생자들의 상처받은 마음속 꽃이 활짝 피어나기를 기원하며 선물 증정
날아올라라, 희망의 나비	- 상연 감상평 작성 연계 체험 프로그램

☐ 행사 홍보물☐ 역사관 홈페이지: <https://www.fomo.or.kr/museum/kor>